



기상 전망 및 동향(1~2월)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추운 날이 많겠으며,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 1개월(1월 중순~2월 상순) 전망 】

순	평균 기온	강 수 량
1월 중순	평년(-5~3℃)보다 낮겠음	평년(7~23mm)과 비슷하겠음
1월 하순	평년(-6~3℃)보다 낮겠음	평년(3~18mm)과 비슷하겠음
2월 상순	평년(-4~4℃)과 비슷하겠음	평년(3~14mm)과 비슷하겠음

1. 날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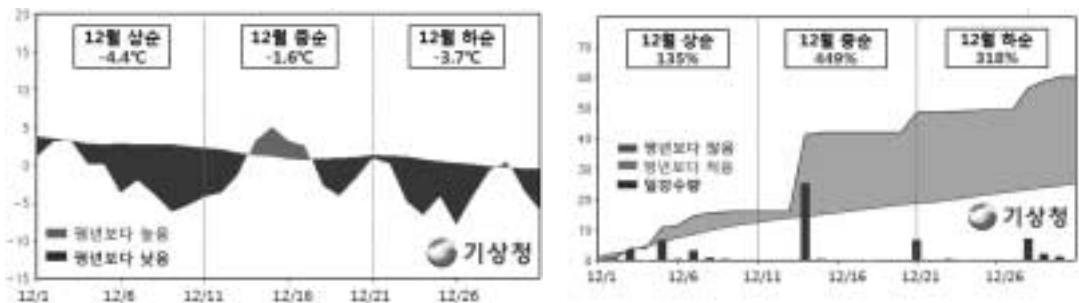
- (1월 중순과 하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겠고,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월 상순) 찬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라니냐 전망)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봄철까지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 12월 다섯째주(23~29일) -0.0℃
 -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 S~5° N, 170° W~120° 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 이상(-0.4℃ 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2. 최근 날씨 동향

- (12월 상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여 눈 또는 비가 오는 날이 잦았음. 2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내륙지역에, 3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렸으며, 특히 5일과 7

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눈(남부 일부지역에는 비)이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4.4°C),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5%).

- (12월 중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았으나 중반에 남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14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1.6°C),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대비 449%).
- (12월 하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대륙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서해안지방에 눈이 자주 내렸음. 21일과 28~29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3.7°C),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대비 318%).
- (최근 1개월, 12.1~12.31) 평균기온은 -1.7°C 로 평년(1.5°C)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3.2°C), 강수량은 60.4mm로 평년(24.5mm)보다 많았음(평년대비 261%).



최근 1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2.12.1~12.31)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 (1월 중순~2월 상순)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1월 중순~2월 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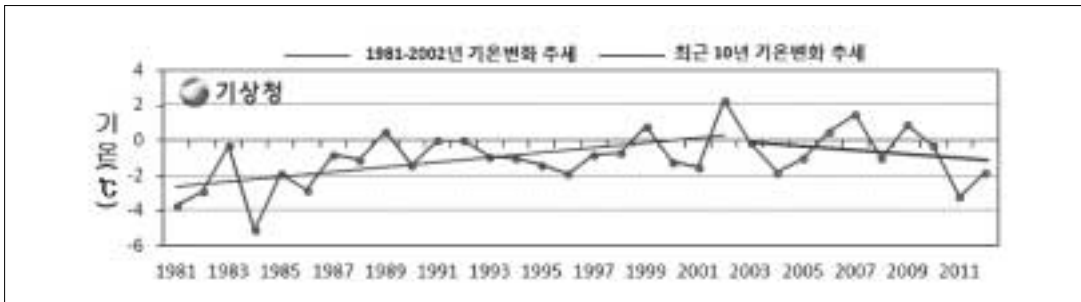
【알림】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3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02-2181-0887)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1월 중순 ~ 2월 상순)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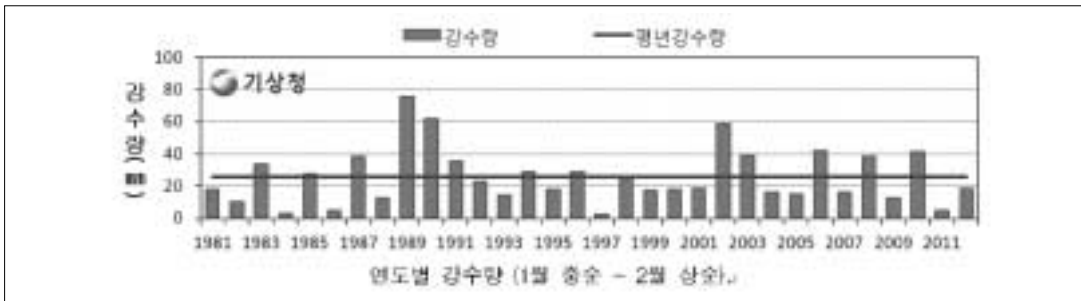
- 최근 10년 전국 평균기온은 -0.6°C 로 평년(-0.9°C)보다 0.3°C 높았음.
-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기온이 다소 올라가는 추세($+1.4^{\circ}\text{C}/10\text{년}$)를 보였으나, 최근 10년간 기온은 낮아지는 경향($-1.4^{\circ}\text{C}/10\text{년}$)을 보임.



연도별 평균기온과 변화 경향 (1월 중순 ~ 2월 상순)

• 강수량

- 최근 10년 전국 강수량은 24.5mm 로 평년(26.1mm) 대비 94%를 보였음.



연도별 평균기온과 변화 경향 (1월 중순 ~ 2월 상순)

※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1월 중순	1월 하순	2월 상순
평균기온 ($^{\circ}\text{C}$)	-0.7	-1.2	0.1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circ}\text{C}$)	4.3 / -5.2	4.1 / -5.8	5.4 / -4.6
강수량(mm) / 강수일수 (일)	9.3 / 2.0	7.9 / 2.6	7.3 / 1.9
눈 현상일수 (일)	2.6	3.6	2.4
일조시간 (시간)	52.9	64.9	59.1
일 최저기온 -10°C 미만 일수 (일)	1.8	2.1	1.4

* 기온 · 강수량은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지점, 눈 현상일수는 19개(목측관측소) 지점 평균임.

[첨부 2]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1월 중순~2월 상순)

• 고온현상

- (2009년 2월 상순)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 평균 최고·최저기온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4.9, 평균 최고기온 +5.0, 평균 최저기온 +5.0).
- (2007년 1월 중순~2월 상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에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4, 평균 최고기온 +2.8). 이상고온으로 영양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김생산량이 20%가량 감소하였고, 소나무와 잣나무 등 상록수들이 고사하였으며, 발작물의 병충해가 증가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월 하순)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 최고기온 6.9℃(평균기온 편차 +2.8℃)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이 나타났음. 전국 곳곳에서 높은 기온 탓에 겨울철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었음.

• 저온현상

- (2011년 1월 중순~하순)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지속되었음.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최저기온 편차가 각각 -4.1℃, -4.1℃, -4.5℃로 1973년 이래 최저 1위를 기록하였고, 16일 부산에서는 -12.8℃로 1915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음. 한파로 인해 농가에서는 시설 하우스 작물 고사와 생육장애가 발생하였고, 전남, 충남, 경남지역에서는 수온 하강에 의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음. 또한, 추위로 인해 재래시장의 판매량은 급감하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량은 20~30% 증가하였음.

- (2006년 2월 상순) 찬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았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두 차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평균 최고기온 2.3℃(평균 최고기온 편차 -3.1℃)로 1973년 이래 최저 7위를 기록하였음. 추위로 인해 도심에서는 수 백 건의 동파사고와 화재사고가 빈번하였고, 채소값이 크게 올랐음.
- (2004년 1월 하순) 북쪽으로부터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평균기온 -3.7℃(평균기온 편차 -2.4℃)로 1973년 이래 최저 7위를 기록하였음. 특히, 21~25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6.0(21일), -16.7℃(22일) 등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14~-9℃를 기록함.

• 대설

- (2005년 1월 16일) 동해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최심신적설(cm) : 울진 20.4, 포항 16.2, 울산 10.1 등)이 내려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경북지역의 비닐하우스 500여 동이 무너져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3년 1월 22~23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22일 최심신적설(cm) : 거창 20.0, 장수 19.2, 금산 16.5, 23일 : 대관령 23.2, 영덕 10.2, 영천 7.7 등)이 내렸음.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여명이 사망했고, 쌓인 눈에 의해 시설물 및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음.